

# 윤석열-이재명 '영수회담' 의제 선정 난항

### 양측, 2차례 실무 회동 불구 합의점 못찾아 시간 부족으로 금주중 '회담 불가' 전망도 천준호 "사전 검토 의견 제시 없어 아쉬워"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 처음 열릴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영수회담이 의제 선정 문제를 놓고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은 25일 오후 회담 일정과 의제 등을 논의하는 실무 회동을 열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이번 주 회담을 제안하면서 취

입 후 첫 회담이 성사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지난 23일 첫 실무 회동에 이어 이를 만에 열리는 두 번째 회의에서도 원만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번 주중에는 회담 성사가 어려울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26일에는 이 대표의 재판 출석도 예정돼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대통령실은 당초 회담 의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회담의 대원칙은 다 열려 있고, 다 들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먼저 이 대표를 대통령실로 초청해 이야기를 들겠다는 것이고, 무슨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든 열려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부에선 민주당이 대통령실로서는 수용하기 어려운 의제를 제안하는데 대한 불평한 기색이 감지된다. 민주당은 앞선 1차 실무 회동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야권이 추진한 각종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요구권(거부권)을 거듭 행사한 데 대한 사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이 대표가 총선 당시 공약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문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법과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직회부된 이른바 '제2양곡관리법'을 회담 의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헌법상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하는데, 회담을 진짜 하려는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불평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영수회담과 관련한 국민의힘 측의 불만도 커지는 상황이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

행은 "의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 회담을 이 시점에 하는 취지나 국민적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민주당이 선거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 시점에 국민이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여야가 서로 협치하고 협치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기대하는 영수 회담의 의제나 목적을 판단하고, 여야 협치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대통령의 재요구권은 행정부가 입법 폭주를 견제할 수 있는 헌법

이 보장하는 권리"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것은 102석 범야권의 거대 의석을 바탕으로 국회의 독점하고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일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동은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차순오 정부비서관과 민주당 천준호 대표비서실장-권혁기 정부기획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40여분간 진행됐다. 천 실장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전에 (의제를) 조율해 성과 있는 회담이 되도록 (대통령실) 검토 의견을 제시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쉬움이 남는 회담이었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25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국회운영위 개최 촉구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과 해병대에비역연대도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을 공수처에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합뉴스

##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에 羅 "이건 아닌데" 李 "자다 봉창"

### 친윤-비윤 '계파 균형설' 토대 흔들려와... 지난해 '김장 연대' 연상

새 지도부 구성을 앞둔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경원·이철규 연대설'이 흘러나오고 있다. 당의 간판급 정치인인 나경원 당선인과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이 각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경선에서 서로 도움을 주기로 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바탕으로 한 설이다. 당사자인 나 당선인과 이 의원은 이 같은 연대설에 분명히 손사래를 치고 있다. 나 당선인은 25일 CBS 라디오에 나와 이 의원과의 연대설 질문에 "그냥 웃을게요"라며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나 당선인은 당 대표 경선을 위한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아직 결정하지 않은 상태다. 출마가 미정인 상황에서 다른 정치인과 연대설은 앞뒤가 바뀐 해석이라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그는 "여러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고 원내대표 도전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당 대표 선출은 전적으로 당원들 몫"이라고 했다. 최근 나 당선인과 윤석열 대통령의 만남을 자신이 중재했다는 소문도 억측이라고 밝혔다. 당사자들의 부인에도 둘의 연대설이 흘러나오는 배경은 4·10 총선 참패에 따른 여론의 역학 구도 변화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수도권 기반의 나 당선인이 '영남당 탈피론'을 업고 당 대표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당 운영을 위해선 당정 간 가교가 필요한데, 대통령실과 소통이 원활한 이 의원이 적격이라는 게 연대설의 한 축이다. '정권 심판론'이 패배 원인으로 지목되는 상황에서 이 의원이 원내대표에 도전할 경우 '도로 친윤당'이라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데,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나 당선인과 손을 잡으면 '계파 균형'이 이뤄질 것이라는 게 또

다른 축이다. 지난해 3·8 전당대회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던 '김장(김기현·장제원) 연대'에 대한 세간의 기억 속에 연대설이 다시 소환된 측면도 있다. 지지율이 미미하던 김기현 의원이 '친윤(친윤석열) 핵심'인 장제원 의원의 도움을 받아 당 대표에 선출됐고, 그 과정에서 나 당선인은 당원 도전을 접었다. 이번에는 '조력자'가 장 의원에서 이 의원으로, 당 대표 후보가 김 의원에서 나 당선인으로 각각 바뀐 것이다. 다만 당시 김 의원과 현재 나 당선인의 정치적 입지를 동일선상에서 보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다.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분석이 가미된 연대설의 실체와 타당성을 놓고 당내에선 긍정적인 입장과 비판적인 주장이 엇갈리는 형국이다. 친윤계로 꼽히는 유상범 의원은 KB S 라디오에서 "원내대표는 정부와 함께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며 이 의원의 원내대표 도전에 힘을 실었다. /연합뉴스

## 민주 "독립운동가 흉상 영구 존치해야"

###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 육사서 기자회견

민주당 독립영웅역사왜곡저지특위는 25일 "육군사관학교 내 흉범도 장군을 비롯한 독립운동가들의 흉상을 영구 존치하라"고 요구했다. 특위는 이날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부가 민심을 받든다면 역사 왜곡을 중단

해야 하며 그 첫 시작은 육사 내 독립전쟁 영웅 흉상 철거 계획을 철회하고 완전 존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회견에는 특위 위원장인 송옥주 의원과 독립투사 후손인 우원식·박찬대 의원 및 김용만 당선인(경기 하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김병주·윤후

덕 의원 등이 함께 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발의된 '육군사관학교 내 독립유공자 흉상 등 존치 촉구 결의안'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의 역사 전쟁에 맞서 흉상 철거계획을 완전히 백지화하고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고귀한 희생을 다한 독립영웅의 명예와 독립을 지켜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수기자

### 조국혁신당 첫 원내대표에 황운하

조국혁신당의 첫 원내대표로 황운하(사진) 의원이 선출됐다. 조국혁신당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당선인 총회를 열고 만장일치로 황 의원을 선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별도 입후보 절차 없이 모든 투표권자가 모여 투표하는 교황 선출 방식의 '콘클라베'가 적용됐다. 현재 대전 중구의 지역구 초선의원인 황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으로 적을 옮겨 비례대표로 재선에 성공했다. 황 원내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강소정당을 지향한다"며 "검찰 독재에 맞서 가장 강하게, 단호하게, 선명하게 맨 앞에서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53년 기술력의 집합체  
우라칸 SH-100 출시!  
우라칸 SH-200 출시!

(사)대한파크골프협회 1호 인증업체 썬아이엔디 와 파크골프채 수제작 전문 기업 에스유엔을 보유한 브랜드  
**썬파크골프**

우라칸 SH-100	우라칸 SH-200	블리스 GOLD	마스터즈 CH-1500	마스터즈 CH-2000
<p><b>NEW</b> 우라칸 SH-1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솔:신주(황동)</p>	<p>우라칸 SH-2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솔:신주(황동)</p>	<p>블리스 GOLD</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논슬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솔:신주(황동)</p>	<p>마스터즈 CH-15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스파이럴 숫자 특허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솔:신주(황동)</p>	<p>마스터즈 CH-2000</p> <p>SPECIFICATION</p> <p>사양 길이:85cm, 무게:530g (±10g)</p> <p>샤프트 3K 고탄성 초경량 카본</p> <p>그립 곡선형 스파이럴 가죽 그립</p> <p>소재 헤드:복합건조 하드메이플 페이스:고탄성 카본 솔:신주(황동)</p>

영무SP sports      문의: 062) 653-4141      광주 남구 대남대로 252 (백운동 644-33)      www.sunparkgolf.com